

불교의 대안교육

황 옥 자

동국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불교계 종립학교의 대안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제교육에서 어떻게 보완 실천해 갈 것인지에 목적을 두고 붓다의 가르침인 불교교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붓다의 가르침은 참다운 인격자인 깨달음을 이루는데 궁극의 목적을 둔다. 따라서 불교의 대안교육도 참다운 사람, 사람됨의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인격교육에 목적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다운 품격을 의미하는 인격은 지, 정, 의 삼요소를 기본으로 하며, 불교적으로는 계 정 해 삼학에 비유된다. 다음은 불교의 대안교육이 지향하는 인격교육을 계정해 삼학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논의한 결과다.

첫째 계율의 인격교육을 논의한 결과 아동 청소년이 계율을 지켜야 하는 주된 이유는 ① 나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며 ② 마음의 통제력을 키우기 위해서이다.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율을 지켜야만 한다. 계율은 마음의 악함과 불건전함을 제거하여 선한 심성이 되며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선정의 인격교육을 통해 마음은 평화롭고 고요히 안정되며 집중력이 향상된다, 선정수행인 명상법은 마음의 불균형 상태를 균형있고 조화로운 원래의 순수하고 참된 마음자리로 회심(回心)하는 치유기능이 있어 정서적으로 혼란기를 겪는 10대 청소년들의 심리안정을 위해 적합한 수행 활동이라 본다.

셋째 지혜의 인격교육을 논의하였다. 지혜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다. 10대 문제아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학업과 진로문제로 극도의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템플스테이를 활용하여 자기와의 진정한 만남과 이해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삶의 진리를 깨닫고 긍정적인 태도를 체득하는 인격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핵심 주제어: 대안교육, 인격교육, 계정해 삼학, 명상, 템플스테이

I. 서론

오늘날 한국의 학교교육은 획일화된 입시경쟁, 성적경쟁이라는 기형의 교육풍토가 점차 심화되어감에 따라 GDP대비 사교육비 지출도 상상외로 증가하고 있어 교육계 안 밖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정작 교육의 중심에 있는 학교현장이나 관할부서는 이런 기형적 교육현실에 상대의 탓만 하며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소극적인 자세만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내자녀의 미래 희망과 행복을 위해 새로운 교육제도를 찾아나서는 이들은 기존의 학교 교육을 거부하고 대안교육을 선호하는 풍토 또한 현재 한국교육이 처한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이다.

학교란 학생들이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향해 열정을 쏟도록 이끌어 주어야할 비전의 산 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들이 학교를 등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정확한 판단과 반성이 있어야만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들을 들으면서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교육현장에 두려움마저 느낀다.

인간의 불안한 정서나 스트레스를 드러내는 흔한 행위중 하나가 욕이다. 2009년 3월 8일 KBS TV에서 “10대 욕에 중독되다”는 제목으로 방영한 것을 보면, 현재 청소년들의 정서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짐작케 한다. 최근의 통계에서 나타난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장애를 비롯하여 아동기 정신병리의 발생비율을 추정해 보면, 일반 아동인구에서 적게는 14%에서 많으면 22%에 이르며, 진단을 내릴 정도의 심각한 형태의 문제는 전체 일반아동의 약 8-10%를 차지한다¹⁾고 한다. 그뿐 아니라 청소년 4명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하였으며 그중 14%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바로 학업과 진로라고 답하였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과도기이므로 정신질환이나 비행과 같은 장애에도 취약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교육적 병리 현상을 보완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건전한 교육을 지향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대안교육이다.

다시 말해서 대안교육은 말 그대로 정규교과목을 보완하며 학생들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강하게 발달하도록 도모한다는데 큰 의미와 가치를 둔 교육방식이라고 하겠다.

본 논문은 종립학교의 교육 현황에 대해 그간 여러 차례 논의되었음을 주목하면서 이 시대 불교계 대안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불교계 종립학교의 대안교육은 기본배경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두고, 참다운 인격자를 육성한다는데 가치와 의미를 두어야 한다. 학생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모두 보호받고 수용되는 존재로서 희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은 최소한

1) 방랑규, 안동현 외, 『아동심리치료학개론』(서울: 학지사, 2009), 98쪽.

의 학교의 책임이고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성장기의 학생들이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안내하는 대안교육을 불교의 교리를 통해 고찰한다는데 의미를 두었다.

II. 불교계 대안교육의 현황

대안교육(alternative education)은 대안학교(代案學校)에서 하는 교육으로서 근본 취지는 공교육 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교육법에서는 대안학교를 “자연친화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전수를 교육목표로 학습자 중심의 비정형적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방식을 추구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으며, “획일적인 공교육제도에서 탈피, 교육목적, 학생수준 등에 따라 자유롭게 다양하게 교육과정, 학습방법 등을 운영 한다”라고 하였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에서는 교과과정의 절반은 국·영·수 등 국민공통교과를 가르치고 나머지 50%는 학교의 특성을 살려 건학 이념에 따라 생태농업 건축 대중매체이해 등 다양한 ‘특성화’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불교계가 운영하는 대안학교는 미인가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학교, 선무도화랑사관학교, 해인스쿨 3곳을 들 수 있다. 이들 대안학교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실상사 작은학교

전북 남원군 산내면 백일리에 위치한 실상사 작은학교는 2001년 3월 개교하여 첫 신입생 15명을 모집하였다. 2003년 3월에는 교보생명보험에서 3년간 장기지원을 받게 되었고 같은 해 대안학교로 선정이 되었다.

교육철학 :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삶의 터전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학교교육이 위기에 처한 시대에 아이들을 존중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성숙해가는 학교를 지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은 학교의 교육철학과 정체성을 체계화해 나가는 참된 교육현장이 될것을 다짐하고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이 땅의 대안학교 역사를 함께 일구어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교육대상 : 중등부

교육과정 : 3단계 6학기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1단계 : 자기발견의 시기 (1학년 1, 2학기)

2단계 : 자기성장의 시기 (2학년 1, 2학기)

3단계 : 심화학습을 통해 삶의 방향을 세우는 시기 (3학년 1, 2학기)

공부구성과 운영은 크게 3가지 유형에 기반 한다.

- 1) 지식공부는 국어 과학 사회, 수학, 영어, 철학, 한문 등이다.
- 2) 체험공부는 몸으로 직접 겪으면서 배우고 익히는 교육을 한다.
- 3) 생활공부는 스스로 자기 삶을 앞가림할 수 있는 자립원칙,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나눌 줄 아는 공존의 원칙, 생명존중과 검약하는 생활을 하는 등의 생태적 삶을 지향한다.

2.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골굴사에 위치한 선무도 화랑사관학교는 2008년 3월 개교하여 전통무예와 전통예술로 특화된 대안학교이다. 골굴사는 대안학교 설립 이전부터 전통무예인 선무도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건학이념 : 원효성사의 화쟁사상을 실현하는 21세기 신화랑 육성에 두고 있다.

교육목표 :

1.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밝고 깨끗한 심신을 수행한다.
2. 선무도와 전통문화교육을 통해 아름답고 원만한 인격을 가꾼다.
3. 건전한 지식과 기능을 학습하며 모범 청소년으로 육성한다.

교육대상 : 중고등부 통합 10명(정원 20명)

선무도 화랑사관학교는 불교 정신과 신화랑 육성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원만한 인격자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선무도와 함께 다양한 전통문화교육을 실시하는 한국의 유일한 특성화 대안학교이다.

3. 해인스쿨

전북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에 위치한 해인스쿨은 2011년 3월 ‘불교적 철학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있는 인재를 양성 한다’는 취지로 개원하였다.

교육대상 : 중고등학생으로 2011년 15명의 첫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교사는 4명이다. 초등학생을 위한 산촌유학과 대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영어집중과정도 겸하고 있는데 해인스쿨은 호주의 타스매니아주와 교육협력을 체결하고 호주에 유학하여 학력인증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해인교육대명제는 행복이다. 해인교육은 이 문제에 도전하기 위하여 크게 다음의 두 가

지 교육을 실시한다.

첫째, 자기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실력양성

둘째, 소통과 나눔의 인간적인 소양을 키우기 위함이다.

해인교육의 특성은 개인별 특성화, 수월성 교육, 국제화 세 가지이다.

해인스쿨은 이상과 같은 대안교육의 의지를 가지고 현재 중고등학생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재정적인 도움이 거의 없이 학부모의 후원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비인가 종립 대안교육기관이다.

Ⅲ. 불교계 대안교육의 방향모색

불교의 대안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불교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참다운 인격 형성에 둔다는 점이다. 현재 불교계 대안학교들의 건학이념이나 교육목표도 인격이나 인간성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음이 그 증거다.

불교는 불교의 이상적 인격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격자체에서 발견한다. 따라서, 붓다의 인격은 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격이며, 인간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인격의 발달이란 붓다의 인격을 본받고 성취하려는 일련의 단계이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제 3차 교육계획 캠페인의 주제를 인성교육으로 정하고²⁾ 바른 인관됨의 교육, 인격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고취시킨바 있다. 지금까지의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성을 기르고 사람으로서의 바른 가치를 갖는데 필요한 덕성이나 품격을 지니도록 학교교육을 통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 10여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인성교육 또는 인격교육을 학교 캠페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방안으로 ‘어울림학교’ 50개를 선정해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교과부는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지난 9월3일부터 8일까지를 ‘인성교육 실천 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그 만큼 인격교육이란 학교교육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인데 비해, 인격에 반하는 학교폭력 등의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사실상 학교폭력의 증가는 그동안 학교마다 노력한 인성교육과 구호로 내세웠던 ‘따돌림 없는 학교세우기’ ‘학교폭력 근절’ 등의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다.

청소년의 바른 인성 또는 인격발달은 현재의 정규교과나 교육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

2) 황옥자, 『불교의 아동교육철학』, 『동국논집』 제14집 (동국대학교, 1995).

다. 더구나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이벤트로 인성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만한 단순한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가정, 학교, 국가가 긴밀한 연관을 맺으며 주도면밀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장기간의 교육적 노력을 통해 실천해 가야할 과업으로 뿌리내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지식위주교육이 우위를 차지한 결과 교육적인 병폐현상이 상당히 심화된 상태이며, 가정의 붕괴, 일상생활의 질적 저하, 청소년들의 일탈과 범죄의 급증, 도덕성 불감증 등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지식 제 일주의에 의해 그 동안 외면하여 왔던 도덕교육, 인격교육의 상대적 불균형이 몰고 온 과보인 것이며 예견된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격교육에는 덕을 지향하는 도덕교육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의 이론이나 방법론에서 인격교육은 지식이나 기술의 교육과는 그 성격이 다른 인간 삶 전체에 관련된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논리에서 보아 인격교육은 가치지향적이고 관계지향적인 교육의 이론이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며 자연히 종교를 통한 인격의 고찰이 요구되어지고 그 맥락에서 교육이 내재적으로 지닌 종교성을 발견하게 된다. 종교성은 바로 이러한 궁극적 지향성을 말하는 것이며 진정한 인간교육을 위해서는 종교가 인간 개개인에게 작용하는 교육체계나 긍정적인 기능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IV. 불교대안교육의 실제: 계정혜 삼학중심의 인격교육

인격발달의 주축이 되는 지, 정, 의 삼요소³⁾는 불교적으로 계, 정, 혜 삼학에 비유된다. 원시불교 시대부터 이미 존재해오던 붓다의 모든 교훈들은 인간의 심리구조에 따라 분류하고 계, 정, 혜의 세 가지 공부로 종합한 것이 바로 삼학이다.⁴⁾ 계, 정, 혜 삼학은 우리의 마음에 내재하고 있는 ‘사람다운 사람’ 즉, 불성계발을 위한 불교의 수행이며, 지, 정, 의에 고른 덕목으로 인간의 조화로운 인격형성을 도모하는 불교의 세 가지 실천 강령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인격발달을 계, 정, 혜 삼학사상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실천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이계학, 『인격교육론』(서울:성원사, 1991), 41쪽.

4) 이기영, 『불교의 근대적 인간형』, 동대개교 60주년 기념학술 심포지움위원회, 1967.

1. 계(戒)의 인격교육

1) 계의 의미

계학으로서의 계는 행위와 언어에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덕목이다.⁵⁾

불교도가 알고 지켜야할 계는 크게 재가계와 출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재가계의 오계, 팔계, 십계 등과 출가계의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계 등을 위한 계율이 있다.⁶⁾

『중아함경』의 『청백연화유경』편을 보면,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신다.⁷⁾

“계를 닦고, 마음을 닦으면 탐욕을 멸할 수 있다.”

『잡아함경』의 『율사가경』에는 붓다께서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문의 내용이 나온다. 어느 날 우자아야 라는 바라문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법을 청하였다.⁸⁾

“세존이시여, 집에 있는 사람이 몇 가지 법을 알고 지켜야 후세에 편안하고 즐겁게 되는지요” 우자아야가 물었다.

이때 부처님은 재가자가 지켜야할 믿음, 계율, 보시, 슬기(지혜)의 네 가지 행을 말씀하셨다. 그 중에서 계율에 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어떤 것이 계율을 완전히 갖춘 것인가? 착한 이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 하지 않으며,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나니 이것을 계를 완전히 갖춘 것이라 하느니라.”

부처님은 재가자가 가정에서 다섯 가지 계율 즉 오계를 지키고 수행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계율은 마음의 발을 청정하게 가꾸어 가는 기본이다.

계율을 지키는 일은 불교의 도덕이나 윤리규범을 나타내는 실천덕목으로써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은 하지 말고 사리에 맞는 행을 하는 것이며, 악은 멈추고 선을 닦기 위한 도덕적이고 경건한 행동규범이라 할 수 있다⁹⁾. 인간은 성장과 함께 몸과 입과 뜻 즉, 신, 구, 의로 많은 악을 범하게 된다. 이렇듯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말과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방지하고 착한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계율인 것이다. 계율은 우주 만물이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생명자리에 비유할 수 있다. 모든 생명체가 각각의 생명자리에 맞는 삶을 살면 ‘계’가 되고, 생명자리를 무시한 삶이며 ‘파계’가 된다.

인격이란 계율을 바르게 지킴으로서 얻어지는 덕목이기 때문에 계율을 파계하고 삶을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인격파탄자라 취급하며 비난하게 된다.

5) 윤희용하, 『불교사전』 (서울: 동국역경원, 1985).

6) 민경환, 『석존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7) 청백연화유경 92. 제6, 『중아함경 2』 (한글대장경), 56-57쪽.

8) 『율사가경』 『잡아함경』 1권. (한글대장경), 95쪽.

9) 『잡아함경』 제7. 1286. (한글대장경), 424쪽.

학교현장에서 학생이 지켜야 할 계율은 학교규율이며 약속이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교가 정한 규율이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학생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자세이며 덕목이다. 이러한 맥을 이어 본 연구자는 아동 청소년이 지켜야할 계율을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의 다섯 가지 계율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계율의 실천행 : 오계

(1) 불살생(不殺生):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불살생은 불교도가 준수해야 할 오계 중 첫 번째 덕목으로 생명의 존귀함을 잘 드러낸 말이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인간의 생명은 물론 일체 미물의 생명까지도 존엄하다는 불교의 대자대비 정신이 내포되어 있는데 생명을 존중하고 살생을 금하는 태도는 일체 만물이 소유한 불성에 입각한 사상이다.¹⁰⁾

『법구경』¹¹⁾에 “모든 생명은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라 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체는 아프고 고통 받는 것을 싫어하며 살아있기를 원한다. 내가 살아있기를 원하는 만큼 다른 생명체도 살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은 해치지 말고 자비심으로 보호해야 한다. 부처님은 자기혼자만 살아있고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제타숲 기수급고독원에 계시면서 비구들에게 설한 불살생의 내용이 『증일아함경』 「삼공양품」에 나온다.¹²⁾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도 살생하지 않고, 남을 시켜서도 살생하지 않으며, 남의 살생하는 것을 보면 마음으로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이유이든 생명체를 해치는 살생은 해악임을 강조한 내용이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상생해야 하는 이유이며 법칙이다.

이런 붓다의 생명관은 오늘날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생태환경이나 생명존중사상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먼저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을 때 그 바탕위에서 타인이나 동식물 등의 생명체로 이어지는 생명존중 의식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 자신을 확대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타생명을 사랑하거나 존중할 수도 없다. 이것이 진리다.

10) 황옥자, 『불교아동교육론』(서울: 불교시대사, 2007). 61쪽.

11) 『법구경』 제10장, 도장품

12) 「삼공양품」 제22, 『증일아함경』(한글대장경). 235-236쪽.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생명의식과 인명경시풍조는 충격적이며 학교폭력과 자살 등 청소년들의 문제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붓다가 말씀하신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도록 이해시키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체험학습은 미룰 수 없는 과업이다.

불살생의 명심문: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남의 생명도 소중하다.

(2) 불투도(不偷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

불교는 내게 주어지지 않은 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지 말라고 가르친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동은 이미 바른 마음의 한계를 벗어난 부정한 마음으로 탐욕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도둑질을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간다는 것은 건전하지 못함을 입증하는 행위다.

『증일아함경』의 『삼공양품』에¹³⁾ 부처님께서 불투도에 관한 해로움을 지적하신 내용이 있다.

“어리석은 자는 남의 재물을 질투하고 나쁜 짓을 행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남의 재물을 보아도 욕심내지 않는다.”

만일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남이 함부로 하거나 몰래 가져갈 경우 내 기분이 나쁘듯이, 나도 남의 물건을 함부로 하거나 몰래 가져가선 안 된다.

불투도의 광의적인 의미는 물건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버리는 행위도 포함한다. 이를 떤 물, 전기, 음식물 등 지나친 낭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생태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정된 지구의 자원을 미래세대와 나누어 사용해야 할 것인데 우리 세대가 마구잡이로 사용하여 고갈시키는 행위는 불투도의 범주에 속하는 잘못된 행동들이다.

불교에서는 도둑질을 하면 그 과보로 미래에 가난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가난과보를 받기 이전에 자연의 이치에 따라 내가 먼저 그 벌을 받게 된다. 그 예로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되면 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하며, 식은땀이 나는 등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괴롭다. 이것이 자연이 내게 내리는 과보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옳고 바른 행동인지를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양심이다. 양심은 나 스스로 아는 것으로서, 누가 지적하기 전에 내 마음이 편안함을 느낀다면 바른 행동인 것이며, 마음이 불편하다면 바르지 않은 행동이라고 깨닫는 것이다.¹⁴⁾

학생의 입장에서 바른 행동이란 정해진 계율이나 학교에서의 규율에 따르는 행동이다. 하지만 계율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는 애착을 멀해야 가능하다. 즉 사물이나 특정인에 대한 집착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탐욕이 너무 크면 잘못된 행동을 할 가능성도

13) 위의 책, 235쪽.

14) 황옥자·이지연 옮김, 『청소년의 부모 STEP』(서울: 창지사, 2012), 201쪽.

그만큼 커지므로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불투도의 명심문: 내 물건이 소중하듯 남의 물건도 소중히 다루자.

(3) 불사음(不邪淫):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사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숫타니파타』¹⁵⁾를 보면, 설산의 야차가 동료에게 ‘깨달은 자는 관능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거룩한 길을 가는 위대한 선인’이라며 찬탄하는 내용이 나온다.

여러 경전¹⁶⁾에도 붓다는 제자들을 향해 육체적 욕망을 함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불사음계를 설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빈두라경』¹⁷⁾을 보면 이성에 대한 욕망을 조복하는 방법을 부정관을 들어 가르침을 주셨다.

“아무리 아름다운 이성이라 할지라도 그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갖가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다. 그래도 이성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면 감각기관의 문을 굳게 지키고 그 마음을 잘 붙잡아 단속하면 욕망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로 육체의 실상을 지적하여 제자들이 헛된 미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 것이다.

『증일아함경』의 『삼공양품』¹⁸⁾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남의 여자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언제나 음행을 생각하며 나쁜 짓을 행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음탕하지 않아서 남의 여자를 보아도 욕심을 내지 않고 남을 시켜서도 음행을 행하게 하지 않는다. 만일 나이든 여자를 보면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중년여자를 보면 누이처럼 생각하며, 젊은 여자를 보면 여동생처럼 생각하여 마음에 차별이 없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소행이니라.”

부처님 당시 갓 출가한 젊은 수행자가 많아 수행의 기본 덕목으로 이성에 대한 욕망 절제를 많이 언급하신 것 같다.

이성에 대한 애욕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나 애욕의 본능은 절제를 잃어버릴 때 인간을 타락시키고 망치게 되므로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수행자뿐만 아니라 재가자도 애욕의 욕망을 잘 다스려야 한다.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잘못된 관계를 가지거나 무절제한 성생활은 자기 자신과 가정, 그리고 상대방 모두를 고통에 몰아넣고 망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자기가족이나 친척 중 누군가 성희롱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하면 불쾌하듯이 나도 남에게 이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하면 그 상대방이 당하는 불쾌감도 매우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성의식이 희박해지고 채팅을 통해 이성을 쉽게 만나 원조교제를 함으로써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종종 우리를 놀라게 한다. 아직 성장해야 할 이

15) 『숫타니파타』, 이레출판사, 67쪽.

16) 『비구니경』 564경, 『잡아함경』 21권.

17) 『빈두라경』 1165경, 『잡아함경』 43권.

18) 앞의 책, 235-236쪽.

들 청소년들이 순간의 잘못된 성생활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미혼모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자칫 삶을 괴롭고 불건전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어 안타깝다. 미성숙한 10대가 도덕적인 해이와 함께 이미 불건전하고 악한 마음의 노예가 되어 잘못된 행위로 표출되었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부모와 가정사회의 불건전한 도덕성의 어두운 면을 반영하는 것이라 본다.

자연은 그 벌을 스스로 받게 한다. 불건전한 행위의 결과인 부작용이나 재난이 그 벌이며, 불교는 이를 인과법으로 설명한다.

불사음의 명심문: 내 몸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히 보호하자.

(4) 불망어(不妄語):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불망어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과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이들 부정적인 말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상대를 정서적, 육체적으로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물론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해치는 말과 같은 부정적인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 인간관계는 주로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 말에 진실이나 배려, 성의가 담겨있지 않다면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

부처님께서서는 비구들을 향해 지혜로운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¹⁹⁾

“지혜로운 자는 입으로 네 가지 행을 성취한다. 네 가지란 첫째, 지혜로운 자는 거짓말 하지 않으며, 둘째, 남을 시켜서도 거짓말 하지 않으며, 셋째, 남의 거짓말 하는 것을 보면 마음으로 좋아하지 않고 넷째,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그 입을 보호하는 것이다.”

『숫타니파타』에서도 붓다가 사문들의 언어사용에 대해 설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수행자들이여, 가장 옳은 말을 하라,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아닌 것은 말하지 말라, 좋은 말을 하고 좋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²⁰⁾

요즈음 청소년들의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대부분의 10대들은 욕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정신이 그만큼 거칠어져 간다는 뜻이다. 대안교육은 이러한 문제를 풀어 가야할 과업을 안고 있다.

불교의 팔정도 중에서 정어(正語)는 바른 말을 의미한다. 자기기분에 좌우되지 않는 진실 되고 자애의 말을 하며 남에게 이익 되는 말을 한다는 뜻이다. 언어란 일종의 학습된 결과이기에 반복과 습관화를 필요로 한다. 잘못된 언어 행위로 이간질하는 말(양설어), 나쁜 말(악어), 속이는 말(기어), 망령된 말(망어) 등을 경계한다. 그 대신 부드럽고, 따듯하

19) 위의 책, 235쪽.

20) 『숫타니파타』. 앞의 책, 158쪽.

며, 상냥한 말을 바른 말의 선업으로 보아 행한다. 언어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간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 공동체의 윤리와 예절 있는 언어의 사용도 아울러 습득해야 한다.

불망어의 명심문: 말은 인격이다. 모두에게 유익한 부드럽고, 따뜻하며, 배려하는 말을 하자.

(5) 불음주(不飲酒): 술이나 마약 등의 중독성 물질을 취하지 않는다.

불음주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원래의 의미가 오늘날에는 술을 마시되 취하도록 마시지 않는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술 문화는 일상화가 된 것이다.

술이나 담배 그리고 마약과 같은 중독성 물질은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특성이 있다. 일단 술에 취해 정신이 흐려지면 옳고 그름의 판단이 흐려져 무방비 상태가 되면서 자신이 행하기를 원치 않는 행위도 서슴치 않고 행할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를 내는 운전자의 대부분이 음주운전이라는 점만 보아도 술의 해악을 알 수 있다. 교사들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술이나 담배문제 등은 성인 못지않게 일상화된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건강이 우려된다.

청소년들이 술에 취해서 순수한 정신과 열정을 불건전하게 사용하거나 유혹에 빠져든다면 개인은 물론 가정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날 대학가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음주사건 등 한국의 음주문화는 기현상을 낳고 있어 10대 청소년을 위한 바른 음주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불음주의 명심문: 술이나 중독성 물질은 순간의 쾌락을 줄 수는 있으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

이상에서 오계를 중심으로 청소년기의 인격교육을 살펴보았듯이 계율을 지켜야 하는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나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바른 삶을 산다는 말이다. 내가 바르게 살면 그 과보는 내게 돌아오며 상대를 해치고 파괴하면 그 결과도 나에게 먼저 돌아온다. 이것이 인과 법칙이다.

둘째, 내 마음을 길들이기 위함이다. 마음의 통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계율을 잘 지켜야만 한다. 계율을 잘 지킬 때 내 마음은 악함이 없고 건전해지며 이런 걸림없는 마음상태가 될 때 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있다.

2. 정(定)의 인격교육

1) 정의 의미

삼학에서의 정은 선정을 말한다. 선정은 마음의 움직임을 쉬고 고요히 안정되어 있는

정적인 상태를 말한다. 마음을 고요하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율을 잘 지켜서 악하고 더러움이 없는 맑고 청정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마음이 번뇌나 망상과 같은 불건전한 상태로서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다.

맛지마 니까야(Majjhima-Nikaya)²¹⁾에 “마음이 악하고 건전하지 못한 욕망의 경계를 벗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부정한 탐욕, 악의, 화, 원한, 저주, 질투심, 오만함, 거짓된 행위 등과 같은 것으로써 더럽혀 진다”라고 하였다. 마음이 건전하지 못한 욕망들로 가득 차 더럽게 되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노예가 되어 얽매인 삶을 산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수 없다면 마음의 통제력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

외부세계는 우리를 끊임없이 욕망으로 얽매이게 하여 물질을 통한 즐거움과 괴로움, 사랑과 미움, 증오 등의 감정을 반복하는 윤회의 덫으로 몰아간다. 이치람 되풀이 되는 행위는 훈습이 되어 업(業)을 두텁게 하면서 자기의지인 자유자재의 삶을 꾸밀 수 없게 만든다. 선정은 이러한 불건전한 마음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힘을 길러준다. 악하고 건전하지 못한 행동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쉽게 바꾸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오래된 습성 즉 업의 결과이다. 그래서 마음을 한곳에 모아 집중하는 선정 수행이 필요하며, 명상과 참선은 선정의 탁월한 수행법이다.

붓다는 제자들을 향해 선정의 중요성을 자주 말씀하셨다.

“너희 비구는 항상 방편을 써서 선정을 닦아 익히어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하여야 하느니라”²²⁾

제자들이 혹시라도 선정수행에 방일하지 않도록 유념하신 것이라 본다.

올바른 선정으로 의지와 정신을 집중하여 인격적인 완성을 추구해 가는 정의 체험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증득함과 더불어 나아가서는 마음을 정화해주는 치유역할을 한다. 그 결과 삶을 긍정적이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마음의 힘과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며 건강하지 못한 정신을 회복하는 효과도 높다.

2) 선정의 체험수행 : 명상

명상이란 ‘나는 진정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의정(疑情)을 갖고 나(我)의 본질을 알기 위해 참구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평온함과 안정, 즐거움, 일상생활에서의 큰 효율성, 사랑하는 능력의 증가, 현실에 대한 더 깊은 관점을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 이러한 목표들은 명상수련에 임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매우 가치롭고도 현명한 일이며 인간 존재로서의 잠재력을 더욱 완전히 성취하도록 이끈다.

명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 정(定)에 해당하는 집중명상과 혜(慧)에 해당하는 지혜명상(또는 관찰명상)으로 전자를 사마타(Samatha)라 하고, 후자를 위빠사나(Vipassana)라고 한다.

21) 『맛지마 니까야 : Majjhima-nikaya』 (정토회, 2012), 112-114쪽.

22) 『육입처경』 68, 『잡아함경』(한글대장경), 70쪽.

사마타란 참선 또는 선(禪)이라는 개념으로서 이때의 선은 선정의 줄임말로 집중명상이라고 한다. 마음집중, 평온, 고요함을 의미하여 수행을 통해 하나의 대상에 깊은 마음집중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빠사나는 관찰명상, 통찰명상, 사념처관, 통찰직관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이 말을 쉽게 풀이한다면 ‘어떤 대상에 대해 본질을 꿰뚫어 바로 관한다’라고 하겠다.

만일 누군가 명상은 왜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려면 마음을 닦아 고요하게 밝혀야 한다. 그것이 선정의 기본이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순수하며 밝다. 그러나 마음이 일단 탐욕심으로 물들게 되면 더 이상 순하지 않아 사납고 흥분하고 난폭해진다.

『증일아함경』의『일자품』²³⁾에는 마음 길들이기에 관해 부처님이 설하신 문맥이 나온다.

“나는 마음보다 빠른 그 어떤 법도 본적이 없다. 마치 마음은 원숭이처럼 빠르고 사납기도 하다. 이 거친 마음을 길들이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야생동물을 길들이듯이 마음을 길들여야 한다. 참을성있게 지속적으로 길들이게 되면 이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잘 도울 수 있다.

이처럼 잠시도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항상 변화하는 마음작용을 건강하고 바르게 길들이 잘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명상수행이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인 기복이 매우 심하며 자아통제력이 약해서 쉽게 욕망과 불건전한 행위에 물들 수 있다. 그러면서도 자아정체성과 영원성에 대한 의문으로 고민하며 방황을 하는 혼란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적인 관점의 고통과 괴로움은 탐진치를 조절하지 못하고 비움보다는 채우려고만 하는데서 일어난 마음의 병으로 본다. 마음의 병은 영원하지 않은 존재에 대해 영원한 것처럼 갈망하고 집착하여 그릇된 환상이나 망상을 가짐으로써 마음의 균형이 깨진 상태이므로 불균형 상태의 마음을 균형있고 조화로운 원래의 순수하고 참된 마음자리로 회심(回心)해야만 치유가 된다.

『잡아함경』을 보면 붓다께서 까뻐라왓투의 디그로와 숲에 머물 때 새로 출가한 석가족들에게 어리석음을 여윈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하셨다.

“세 가지 나쁜 마음이 있느니라. 육체의 쾌락을 생각하는 마음과 사악함을 생각하는 마음과 남을 해치려고 생각하는 마음이다.” 너희들은 자신 밖의 대상(육경)을 쫓아 다니는 마음을 떨쳐 버리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사념처의 수련을 통해 마음속에 잠재한 세 가지 나쁜 생각을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²⁴⁾

명상은 오늘날 몸과 마음이 다 함께 피로해진 현대인들이 자기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마음, 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가치가 인식되기 시작하

23) 『일자품』, 『증일아함경』 제4권(한글대장경), 65쪽.

24) Goenka S, N., *The Art of Living* William Hart Vipassana Research Institute, 1988-2008.

였으며 이제는 성인은 물론 아동 청소년에 이르기 까지 자신의 불안한 정서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워 마음치유를 하는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명상에 관한 과학적인 실험연구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되면서 그 효과가 명확히 입증됨에 따라 명상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명상의 방법과 형식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기의 명상은 발달특성상 들숨과 날숨의 호흡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아나빠나 명상이 적합하다. 그런 점에서 이 분야에 관한 여러 논문²⁵⁾들은 주로 호흡명상을 통한 집중명상을 통해 그 효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Titmuss(1999)는 명상의 효용성에 관련하여 “명상은 심신 치유의 무한한 자원 개발이며 에너지를 충전 시키고 강력한 웰빙감을 만들어 내는 치료법이라고 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강력한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고 극찬하였다.²⁶⁾

명상은 오랫동안 주로 종교인들의 수행을 위한 방법으로만 인식되어 왔지만 행복을 위해 추구해온 물질문명이 물질만으론 충족될 수 없는 정신문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알려준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21세기의 주역이 될 10대 청소년들에게 다행한 일이라 본다.

3. 혜(慧)의 인격교육

1) 혜의 의미

혜란 지혜를 의미하며 도리를 명석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즉, 사물이나 도리를 인지하고 판단하며 추리하는 정신작용이다. 혜를 다른 말로는 지혜, 지적이해, 예지 등으로 표현하며 진리의 도리를 그대로 보는 밝음이다. 그러므로 혜학은 번뇌 망상에서 벗어난 맑고 깨끗한 본래의 “참된 나”를 깨닫는 지혜의 공부이다.

혜의 실천 방법으로는 바른 견해와 바른 사고를 들 수 있다. 바른 견해(正見)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이치를 통찰하도록 도모하여 삶을 의미 있고 풍성하게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바른 사고(正思)에 의해 인간은 사물에 대한 밝은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한다. 사물이나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직접 보고 안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그것을 바르게 사유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정사란 사물의 본질을 외적 형상에 눈이

25) 김지연, 『명상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정서안정과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효과』(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민숙영, 『명상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정서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동진, 『통합명상 훈련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주의집중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안동대학교 석사 논문, 2003).

26) Titmuss(1999), *The Power of Meditation-energize the mind & restore the body*, London The Apple press.

어두워 왜곡됨이 없이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지혜의 바탕이라 하겠다.

지혜는 그 유형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위대한 스승이나 경전을 통해 습득한 스타마야 반야(suta-maya panna), 지식이나 논리적인 이해를 통해 얻은 진타마야반야(cinta-maya panna), 직접 체험을 통해 얻는 바하바나마야 반야(bhavana-maya panna)이다. 이 중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지혜는 바하바나마야 반야이다. 지혜는 남에게 들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며 이론이나 머리로 믿어지는 것도 아닌 몸소 체험으로 얻어지는 실천행위의 결과로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내재한 ‘심층적 차원의 습관적 경향’(habit pattern of the mind)들을 변화시키어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²⁷⁾.

아함경과 같은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지혜로운자는 몸, 뜻, 입을 바르게 사용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몸과 뜻과 입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그 과보를 받게 된다”며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매우 많다.²⁸⁾

2) 지혜의 체험수행 : 템플스테이

불교가 지향하는 바른 인격의 소유자는 나와 너, 나와 이웃, 나와 인류, 나와 동식물, 나와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삶을 산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생명체가 왜 함께 상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지 그 이치를 안다.

지혜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다. 지혜의 삶은 남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체험으로 증득하여 아는 것이다. 위빠사나 명상은 몸의 감각을 관찰함으로써 지혜를 체득하는 명상법이다.

청소년기 문제아들의 공통점인 나란 누구이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와 같은 참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극도의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며 부모도 자신을 포기하였다고 믿는다.²⁹⁾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학업이나 진로문제는 더욱 심한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며 자연스럽게 가출, 학교폭력, 중독성 물질, 게임 중독과 같은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지혜있는 삶을 위해 그 실천방법으로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이외에도 학교를 벗어나 체험하는 기회는 에너지가 넘치는 10대에게 의미깊은 산교육이 될 것으로 본다. 그중 하나가 템플스테이다. 템플스테이는 일정기간 사찰에 머물면서 절집생활을 하며 마음을 기르고 닦는 휴식과 수행에 목적이 있는 체험활동으로 마음의 여유를 주며, 자발성의 증진, 즐거움, 솔직한 의사표현, 서로 배려하기³⁰⁾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27) 황옥자, 『GOENKA 위빠사나 명상과 마음치유』, 『명상치료연구』(서울: 한국명상치료학회, 2010), 29-30쪽.

28) 증일아함경, 잡아함경, 앞의 책.

29) 황옥자, 앞의 책(2012), 48-53쪽.

30) 금산사, 대광사, 마곡사 등의 템플스테이 결과 보고, 『템플스테이 평가 및 운영활성화 방안』(한국불교 문화사업단, 2008); 여태동, 『템플스테이의 운영실태와 향상화 방안』(한국불교선원연구원, 2007).

불교 조계종단에서는 2002년부터 템플스테이를 실시하여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³¹⁾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며 살아 숨쉬는 자연의 푸른 숲은 마음에 상처를 입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며 그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108배 참회기도, 바루공양, 숲길을 걸으며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과 일치하는 체험 등은 상생의 지혜를 깨닫게 하며 사찰의 전통문화체험과 국보, 보물 등 우리 전통문화재에 관심가지기 활동은 국가사랑을 일깨운다. 이와 같이 템플스테이는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나를 알고 우리를 알도록 안내하는 가치 높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각 사찰은 다양한 형태의 템플스테이를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는 청소년들의 인격함양을 위한 대안교육에 매우 적합한 활동이라고 하겠다.

지혜는 감각으로 느끼고 직접 경험하는데서 깨닫는 마음의 밝음이며 체험으로 체득되는 삶의 예술이다. 청소년들이 참된 삶의 태도, 바른 인격을 가꾸는데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다.

V. 결 론

본 논문은 불교계 종립학교의 대안교육이라는 주제를 통해 종립학교의 대안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제 교육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보완하여 실천해 갈 것인지를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살펴보았다.

불교계 종립학교의 대안교육은 기본 배경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두고, 참다운 인격자를 육성한다는데 가치와 의미가 있다. 부처님이 중생을 자비심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보호받고 수용되는 안전한 교육의 장이 되어 희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성장기의 학생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인간, 참된 인격자로 성장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대안교육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격교육의 지, 정, 의 삼요소를 불교의 기본교리인 계 정 혜 삼학에 비유하여 종교적인 맥락으로 조망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기의 인격을 실천적이고 수행 방법론적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계율의 인격교육을 논의하였다. 아동 청소년이 계율을 지켜야 하는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보면, 하나는 ‘나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다’는 점이며, 다음은 ‘마음을 길들이기 위함’이다. 마음의 통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계율을

31) 박영동, 『학교폭력 문제와 불교의 대응』, 『불교평론』 51(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2), 320쪽.

잘 지켜야만 한다. 계율을 잘 지킬 때 비로소 마음의 악함이 사라지고 건전해지며 스스로 마음을 통제하게 된다.

둘째 선정의 인격교육을 논의하였다. 10대는 자아정체성, 미래의 진로 그리고 영원성에 대한 의문으로 고민하며 방황을 하는 혼란기이다. 10대의 고통과 괴로움이 탐진치를 조절하지 못하고 비움보다는 채우려고만 하는데서 일어난 마음의 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명상은 훌륭한 대안방안이 된다. 명상은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한 삶을 향해 변화를 시도하며 마음의 불균형 상태를 균형있고 조화로운 원래의 순수하고 참된 마음자리로 회심(回心)하는 치유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혜의 인격교육을 논의하였다. 지혜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통찰력으로 체험을 통해 증득된다. 생명이 공존하며 살아 숨쉬는 자연은 마음에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을 제공하며, 절집생활을 체험하는 동안 나를 알고, 나와 너는 하나라는 상생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는 인격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

오늘날 학교교육의 정규과목이나 교육체계만으로는 아동 청소년기의 문제점을 바르게 지도하고 감당할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처럼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한 불교적 대안교육이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맛지마 니까야 : Majjhima-nikaya』, 정토회, 2012.
- 『법구경』 제10장 도장품.
- 『중아함경』 2권, 한글대장경.
- 『증일아함경』 1권, 한글대장경.
- 『증일아함경』 제4권 제10십품 한글대장경.
- 『증일아함경』, 「삼공양품」 제22, 한글대장경.
- 『증일아함경』, 「일자품」 한글대장경.
- 『잡아함경』 제18권, 「거죄경」 한글대장경.
- 『잡아함경』 1286, 한글대장경.
- 김동진. 『통합명상 훈련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주의집중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김동화. 『원시불교사상』. 서울: 보연각. 1988.
- 김지연. 「명상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정서안정과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문경림. 『명상이 아동의 주의집중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민숙영. 『명상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정서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박영동. 「학교폭력 문제와 불교의 대응」, 『불교평론』 51, 여름 제14권 2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2.
- 방랑규·안동현 외. 『아동심리치료학개론』. 서울: 학지사. 2009.
- 법정. 『숫타니파타』. 이레출판사. 2007.
- 여태동. 『템플스테이의 운영실태와 향상화 방안』. 한국불교선린연구원. 2007.
- 오윤경. 「호흡과 오감에 의한 염지관 명상상담이 청소년의 자아 개념에 미치는 영향」. 『명상치료 연구』 제2집. 한국명상치료학회. 2008.
- 운허용하. 『불교사전』. 서울: 동국역경원. 1985.
- 이계학. 『인격교육론』. 서울: 성원사. 1991.
- 이기영. 『불교의 근대적 인간형』. 동대개교 60주년 기념학술 심포지움위원회. 1967.
- 이종미. 「명상이 아동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정진순. 「명상활동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황옥자. 「불교의 아동교육철학」, 『동국논집』 제14집. 동국대학교. 1995.
- _____. 「유아기 인격발달에 관한 불교사상적 접근」. 『열린유아교육연구』. 서울: 열린유아교육학회. 2008.
- _____. 『불교 아동교육론』. 서울: 불교시대사. 2007.

- _____. 「GOENKA 위빠사나 명상과 마음치유」. 『명상치료연구』. 서울: 한국명상치료학회. 2010.
- 황옥자 · 이지연 옮김. 『청소년의 부모 STEP』. 서울: 창지사. 2012.
- Goenka S, N.. *Meditation Now*, Vipassana Research Institute. 2003-2007.
- _____. *The Art of Living* William Hart Vipassana Research Institute. 1988-2008.
- Titmuse, C.. *The Power of Meditation-energize the mind & restore the body*, London: The Apple press. 1999.

원고접수 : 2012년 11월 19일 / 1차 심사: 12월 6일 / 게재승인일: 12월 10일

연구자소개 : 황옥자

- ① 전공: 유아교육 / 소속 :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② 관심영역 : 불교아동교육, 불교부모교육 및 상담
 - ③ 주요논저 : 불교아동교육론, 내 아이 마음 키우기, 동요와 손유희
 - ④ E-mail : hoj@dongguk.ac.kr
-

Abstract**Alternative Education of Buddhism****Hwang, Okja**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alternative education of Buddhist religious schools. Buddhist alternative education values the fostering of a man of character built upon the Buddha's teaching. The personality education was looked into with a focus placed on the three supreme disciplines of the Buddha: Sila, Samadhi and Panna.

First, this study discussed the personality education of Sila(precepts). Teenagers need to conform to Five Precepts as it benefits not only themselves but others as well. It also helps to build up control of mind.

Second, the personality education of Samadhi(concentration) was explored. Samadhi allows one's mind to gain calm through meditation. Samadhi helps one's mind at peace and stability.

Last, this study examined the personality education of Panna(wisdom). As Panna can only be obtained from one's own experience, Temple Stay is a proper program for teenagers. Panna is an insight which allows one to see things as they are, realize the truth, and to learn the way of living together with others .

Key words : Alternative Education, Personality Education, Sila, Samadhi Panna, Three Supreme Disciplines, Meditation, Temple Stay